

〈제 769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공부방 개선 및 학습돌봄 지원 후원금 7억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은행 본점에서 황영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부방 환경 개선 및 학습돌봄 지원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1억원의 금액을 들여 노후화된 지역아동센터 13개소의 시설을 개보수하였으며, 올해는 범위를 확대하여 총 7억원, 약 40개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후원금 전달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우리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가며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올해 첫 ‘팩토리스토어’ 연다



광주신세계(대표 이동훈)가 다양한 패션&라이프스타일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하는 ‘팩토리 스토어’를 올해 처음으로 연다고 1일 전했다.

‘팩토리 스토어’란 신세계백화점의 안목으로 한곳에 모은 패션&라이프스타일 상품을 30%에서 최대 80%대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쇼핑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다.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7일까지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진행된다.

금호타이어

◆글로벌 정보보안 인증 'TISAX' 획득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독일자동차산업 협회(VDA)로부터 글로벌 정보보안 인증 '티삭스'(TISAX)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티삭스는 VDA가 자동차 제조사들의 보안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국제표준화 기구(ISO)의 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ISO/IEC 27001'을 바탕으로 정보보안체계 등 4개의 항목

에서 보안성을 평가한다.

임완주 금호타이어 경영기획본부장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명가 금호타이어'라는 수식어에 걸맞도록 유럽 등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현대모터스에 유니폼 브랜드 적용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이한 '전북현대모터스'에 유니폼 브랜드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스페셜 뉴트로 유니폼 상의 뒷면 하단에 금호타이어의 로고가 노출될 예정이다. 전북현대모터스 선수들은 오는 30일 K리그1의 최고 명품 매치인 '현대가 더비'를 포함해 총 5번의 홈경기에서 스페셜 뉴트로 유니폼을 착용한다.

윤장혁 금호타이어 글로벌마케팅담당 상무는 "국내 최고의 명문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에 유니폼 브랜딩을 하게 돼 기쁘다"며 "국내 축구팬들이 금호타이어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중대법 확대 시행 대비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설명회 개최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일 광주지역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안 이사장은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업장들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해양조

◆유럽 파리 패션 중심지에 등장한 ‘보해 복분자주’ 눈길과 입맛 사로잡아



보해양조는 28일 ‘보해 복분자주’가 ‘2024 가을·겨울 파리 우먼스 패션위크’ 기간 문을 연 패션 브랜드 ‘미스치프’의 팝업 파티에 ‘K-와인’으로 소개됐다고 밝혔다.

보해 복분자주 특유의 곡선이 담긴 병 모양은 한국적 감성을 잘 드러내고, 붉은색 패키지는 이번 시즌 미스치프의 콘셉트 컬러인 ‘레드’와 일치한다는

게 미스치프의 설명이다.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는 “이번 미스치프 파리 팝업을 계기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지난해 상반기 보해 복분자주 프랑스 수출액은 2년 전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고 했다.

한전KPS

◆청렴옴부즈만 위촉 및 올해 첫 운영협의회 개최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청렴도 향상과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명성이 높은 전문가를 추천받아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된 ‘제5기 청렴옴부즈만’을 출범했다고 1일 전했다. 앞으로 한전KPS 청렴옴부즈만은 사내 민원사무나 갑질 등의 처리과정 및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한전KPS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문할 예정이다.

이성규 상임감사는 “위원님들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정의 의지로 정직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며, “다양한 시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옴부즈만 의견을 수렴하여 회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지난해 영업이익 1975억...재무성과 괄목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지난해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재무성과를 달성했다.

한전KPS는 이날 영업 보고를 통해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매출액 1조5230억원, 영업이익 1975억원, 당기순이익 1618억 원이라는 재무성과를 달성해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수없이 많은 위기를 극복한 지난 40년의 저력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 기업으로 도약하는 미래 100년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면서 "업(業)의 확장'을 통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완벽 정비를 통한 고객가치 제고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전KDN

◆ 오픈소스SW 특강으로 미래사업 역량 강화 모색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지난 27일 본사 빚가람 홀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오픈소스 특강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한전KDN의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 비전을 실행키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클라우드 환경의 오픈

소스에 대한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에너지ICT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전KDN의 클라우드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민간 오픈소스 전문기업과 공공기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오픈소스 SW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공공부문 클라우드 환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의 역할 수행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주임·대리급' MZ세대 직원, 경영 참여 확대"



한전KDN(사장 김장현)회사 비전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MZ세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2030비전의 효과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래 핵심인 20·30세대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라고 보고, 자사 20·30세대 직원들이 회사 비전 달성을 위해 직접 제도를 개선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2030 Vision Planner'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지난 2년간 제도 운영을 통해 청년 직원들의 회사 비전과 전략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알릴 수 있는 내재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천했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

◆ 광주FC 선전 기원과 홍보 앞장



고객과 함께 미래를 밝히는 친환경 종합에너지기업 (주)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희)는 2024 시즌 광주 FC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직접 홍보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며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회사는 광주전남 전역을 순회하는 100여대의 회사 순찰차량 및 임직원 차량에 광주FC 엠블럼과 경기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담긴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여 적극적으로 광주FC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주)해양에너지는 오는 3일 예정된 인천FC와의 홈경기에 '스코어 맞추기' SNS 이벤트를 당일 경기 전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방법은 해양에너지 공식 인스타그램(@hyenergy_official)을 구독한 후,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에 광주FC 응원과 예상 스코어를 댓글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롯데상품권, 치킨 쿠폰 등의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1. 경제 동향

◆ 경총, 「주요 기업 AI 도입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 발표 (3.21)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주요 기업 AI 도입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 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0%는 ChatGPT 같은 AI(생성형*, 이하 동일)를 회사 차원에서 사무직군에 이미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AI를 도입(예정 포함)한 기업의 85.7%는 AI 활용이 업무 소요시간을 줄인다고 답변, 기업 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큰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이 75.0%로 가장 많았음.

* 생성형 AI : ChatGPT, Bard, Private(폐쇄형) AI 등을 통해 이용자(ex 사내 임직원, 소비자·고객)의 질문 및 요청에 대해 새로운 정보나 맞춤형 콘텐츠를 생성해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의미

※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공기업 제외, '22년 기준) 및 경총 주요 회원사 대상 설문 조사(응답 기업 50개사)

- ① **(AI 도입 현황)** ChatGPT 같은 AI를 회사 차원에서 사무직군에 도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도입했다”는 응답은 38.0%, “도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2.0%로 집계. 응답별로는 ‘회사 차원의 도입은 없으나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활용’ 응답(50.0%)이 가장 많았으며, ‘회사 차원에서 활용을 금지’ 했다는 응답도 12.0%로 나타남.
- ② **(AI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 현재 AI를 회사 차원에서 도입하지 않은 기업(응답기업의 62.0%)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 ‘정보 유출 우려’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준비 기간 필요’ 29.0%, ‘업무 특성상 필요하지 않음’ 16.1% 順으로 나타남.
 - **(향후 AI 도입 계획)** 현재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중 29.0%는 “향후 AI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나, 71.0%(전체 응답기업 중 44.0%)는 “향후에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
- ③ **(업무 소요시간 단축 인식)** AI를 도입(예정 포함)한 기업의 85.7%는 “AI가 업무 소요시간을 줄였다(줄일 것이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AI가 업무 소요시간을 줄이지 않았다(않을 것이다)”는 응답은 14.3%.
- ④ **(AI가 기업 내 일자리에 미칠 영향)** AI를 도입(예정 포함)한 기업들은 주로 AI 도입,

Ⅲ. 노동경제동향

확대로 인해 일자리 대체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업무영역 확대 등 신규 일자리가 늘면서 전체 일자리는 “큰 변화가 없을 것(75.0%)”으로 답변. AI 도입·확대로 인한 일자리 대체 효과가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 더 크게 나타나 “전체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란 응답은 17.9%. AI 도입·확대로 인해 “전체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란 응답은 7.1%로 집계.

◆ 경총, 「2024년 기업 임금정책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계 권고」 발표 (3.22)

- 경총은 「2024년 기업 임금정책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계 권고」를 3월 22일 회원사에 송부하였음.

〈 주요 내용 〉

- 첫째, 고임금 근로자 임금, 최소 수준 인상 및 과도한 성과급 자제 권고
 -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누적된 고임 임금인상에서 비롯된 임금격차가 일자리 mismatch를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 특히, 좋지 않은 실적에도 노조가 높은 임금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힘.
- 둘째, 고임금 대기업은 임금안정을 기반으로 청년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
 -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은 일자리 창출능력의 약화와 mismatch 악화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
- 셋째, 업무효율성 제고를 통해 근로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사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업들에 요청
 - 비효율적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업무시간 중 근로자의 사적 용무시간 최소화 필요
- 넷째, 일의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평가 및 임금체계를 시급히 구축하고, 저성과자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

Ⅲ. 노동경제동향

◆ 경총,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 출범식」 개최 (3.27)

-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단체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구성·발족

* 구성: (공동단장) 저고위 상임위원, 경총 상근부회장
(정부)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담당 실장
(경제단체) 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중견련 본부장

-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협업체계 구축과 범국가적 역량결집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로 협의체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최슬기 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동단장으로, 경제단체 본부장,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본협의체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두고 운영될 예정

-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급이나 다자녀 직원 승진 우대 등 자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하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잘하고 있는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

- 주형환 부위원장은 “기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력 감소, 잠재성장률 감소 등의 영향을 받는 직접 당사자이자, 저출산 반전을 위한 핵심 주체이다. 경제단체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주요 파트너로서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소통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육아휴직,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힘을 모으고 저출산 반전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언급

◆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4년 3월)」 발표 (3.28)

- 2023년 4/4분기말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4.9%(추정치)로 전분기(225.6%)

Ⅲ. 노동경제동향

대비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자금순환통계상 가계(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기업(비금융법인)부문 부채(대출금, 정부융자, 채권) 잔액

- **(가계신용)** 가계신용은 2023년 4/4분기말 기준 100.6%로 전분기(101.5%) 대비 0.9%p 하락

- **(기업신용)** 기업신용은 2023년 4/4분기말 기준 124.3%로 전분기(124.1%) 대비 소폭 상승.

○ 한편, 2023년 3/4분기중 기업*의 주요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성장성, 수익성 및 이자지급능력

** 등의 지표는 기업실적 부진**, 높은 이자비용 등의 영향으로 2022년말 대비 저하됨.

*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 및 일부 비상장기업(금융보험업 제외)을 대상으로 분석. 2023년 3/4분기말 기준 2,383개 기업(대기업 1,231개, 중소기업 1,152개)을 대상으로 분석.

** '23.3분기말 기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1.6배,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은 44.4%로 나타남.

*** 업종별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을 보면, 전기·전자('22년 8.8%→ '23년 3/4분기 △5.2%)가 영업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석유화학(5.6%→ 3.6%), 건설(4.0%→ 2.3%) 등의 업종에서도 수익성이 저하.

◆ 고용노동부, 「2024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28)

〈 고용 부문('24.2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는 1,983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 2천명(1.2%) 늘어나며 2021년 3월부터 36개월 연속 증가

○ **(입·이직)** 입직자는 89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4천명(△5.7%) 감소했고, 이직자는 88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6천명(△3.9%) 감소

〈 근로실태 부문('24.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명목 임금)**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428만 9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Ⅲ. 노동경제동향

40만 5천원(△8.6%) 감소

※ 임금총액 감소는 전년 1월이었던 설 명절이 금년에는 2월에 포함되어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

○ **(총 근로시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5.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2시간(7.3%) 증가

※ '24년 1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증가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2일 증가(20일→22일)한 영향

◆ 한국은행, 「2024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 (3.22)

○ 2024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농림수산물(0.8%), 공산품(0.5%) 등이 올라 전월대비 0.3%상승(전년동월대비 1.5% 상승)

※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 전월비) : △0.1('23.10)→ △0.4(11)→ 0.1(12)→ 0.5('24.1)→ 0.3(2)

※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3년 8월(1.0%)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비) : 0.7('23.10)→ 0.6(11)→ 1.2(12)→ 1.3('24.1)→ 1.5(2)

- **(농림수산물)** 축산물(△2.4%)이 내렸으나 농산물(2.6%), 수산물(2.1%)이 올라 전월대비 0.8% 상승(전년동월대비 10.9% 상승)

- **(공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3.3%), 화학제품(0.9%), 제1차 금속제품(0.6%) 등이 올라 전월대비 0.5% 상승(전년동월대비 0.3% 상승)

-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산업용도시가스(△9.2%) 등이 내려 전월대비 0.9% 하락(전년동월대비 0.9% 상승)

- **(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0.6%), 부동산서비스(0.4%) 등이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전년동월대비 2.1% 상승)

○ 2024년 2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전년동월대비 1.2% 상승),

Ⅲ. 노동경제동향

총산 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전년동월대비 2.2% 상승)

* 국내에 공급(국내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 국내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 한국은행, 「2024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발표 (3.27)

○ 2024년 3월 업황BSI는 69*로 전월대비 1p 상승하였으나, 2024년 4월 업황전망BSI는 71로 전월대비 1p 하락

* 업황BSI 추이 : 70('23.11)→ 70(12)→ 69('24.1)→ 68(2)→ 69(3)

- **(제조업)** 2024년 3월 업황BSI는 71*로 전월에 비해 1p 상승하였으나, 2024년 4월 업황전망 BSI는 73으로 전월에 비해 2p 하락

* 제조업 업황BSI 추이 : 70('23.11)→ 70(12)→ 71('24.1)→ 70(2)→ 71(3)

- **(비제조업)** 2024년 3월 업황BSI는 68*로 전월에 비해 1p 상승하였으나, 2024년 4월 업황 전망BSI는 69로 전월에 비해 1p 하락

* 비제조업 업황BSI 추이 : 69('23.11)→ 70(12)→ 67('24.1)→ 67(2)→ 68(3)

◆ 한국은행, 「2024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3.26)

○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3월중 100.7로 전월(101.9)대비 1.2p 하락

* 소비자심리지수(CCSI) :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2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 소비자심리지수(CCSI) 추이 : 97.3('23.11)→ 99.7(12)→ 101.6('24.1)→ 101.9(2)→ 100.7(3)

-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68)는 전월대비 2p 하락, 향후경기전망CSI(80)는 전월과 동일

Ⅲ. 노동경제동향

- 물가수준전망CSI(146)는 전월대비 2p 상승, 임금수준전망CSI(116)는 전월과 동일
- (기대인플레이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월 3.2%로 전월대비 0.2%p 상승
 - ※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3.4('23.11)→ 3.2(12)→ 3.0('24.1)→ 3.0(2)→ 3.2(3)
-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 (63.4%), 공공요금(54.2%), 석유류제품(27.0%) 등 順
- (물가인식)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하는 '물가인식' 은 3월 3.8%로 전월과 동일
 - ※ 물가인식 추이(%) : 4.1('23.11)→ 3.9(12)→ 3.8('24.1)→ 3.8(2)→ 3.8(3)

2. 노사 동향

◆ 정부는 원·하청 상생 협력에 주력

- 고용부는 3. 25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를 개최하고,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이후 성과 점검 및 향후 과제 발표
 - ※ 고용부는 지난 2022년 11월 조선 5사 원·하청 대표, 전문가, 관계부처(고용부·산업부·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
 - ※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5개사 원·하청 대표와 전문가 등은 지난해 2.27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 고용부는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이후 지난 1년간 ① 협력사 근로자의 임금·복지 등 보상 수준 상승, ② 조선 5사와 협력업체 종사자 수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
- 또한, 고용부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플랫폼으로 ① 원·하청간 보상 격차 축소, ② 재하도급 최소화 등에 주력하겠다고 발표

◆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도한 성과 보상 요구 등 지속

-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4개 지회(인천, 포항, 순천, 당진)가 3. 25~27 2023년 임금교섭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나, 당진지회는 부결
 - ※ 현대제철 노사는 ▲기본급 10만 4,000원 인상, ▲성과금 400%, ▲격려금 1,350만원 등에 합의
 - ※ 현대제철은 금속노조 산하 5개 지회(인천, 포항, 순천, 당진, 당진하이스코)와 지회별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 21 4개 지회와 2023년 임금교섭 합의안 도출
 - ※ 당진지회는 3. 27 임금교섭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54.1% 반대로 부결
- 한편, 삼성전자 노사의 임단협 교섭 난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는 3. 18~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 ※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 14 삼성전자 노사에 조정중지 결정
- 삼성전자는 지난 3. 18 교섭에서 노조에 ▲임금 5.1% 인상, ▲유급휴가 확대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성과급 제도 개편 등의 요구를 지속함에 따라 교섭 결렬